

평어와 세 개의 현실

Equal Speech and Three  
Realities

생각하는 존재는 말하려는 충동을 가지며, 말하는 존재는 생각하려는 충동을 갖는다. - 한나 아렌트<sup>1></sup>

## 1. 서론

디자인사는 모더니즘으로 시작한다. 미술공예운동과 바우하우스의 디자인 модерни스트들은 사회개혁가들이었다. 그들은 디자이너들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알아보았다. 디자이너라면 알고 있겠지만, 그것이 디자인 역사의 시작이었다. 디자이너는 모더니즘의 후예들이다. 나는 오늘 디자인 모더니즘의 정신 중 가장 좋은 것을 놓지 않으면서, 그리고 오늘날 디자이너들이 디자인 실천의 영역을 전통적인 디자인 직업 바깥으로 넓히고 있다는 사실을 붙잡으면서, 말도 디자인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경험 디자인”이나 “사회적 디자인”이라는 디자인 착상과 연구와 실천도 어쩌면 놀랍도록 혁신적이지만, 이제 말의 문제도 디자인 문제로 볼 수 있는지를. 나는 가끔 세종이 디자이너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그는 아무래도 글의 문제를 디자인 문제로 보았던 것 같으며, 너무나도 기능적이고 아름다운 디자인 해결책을 내놓았다. 그 결과 우리는 한글을 사용하고 있으며, 한글이 없다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게 되었다. 프랑스사람들이 <모나리자>가 없다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예술 감수성이다. 한국사람들이-미술관에 있지를 않고 평범한 삶에 있는-한글이 없다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다면 그것은 디자인 감수성이다. 오늘 나는 이제 글이 아니라 말도 디자인 문제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을 할 것이다. 평어가 없다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는 때가 올 것인지에 아직은-예술 희망이 아니라-디자인 희망을 걸어놓기만 하고서.

## 2. 본론

### 2.1. 문제의 이름

오늘 이 글에서 소개할 것은 평어 실험 경험이다. 평어는 한국말의 속명과도 같은 존비어체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자인 해결책이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한국학 학자 최봉영은 한국사람들이 겪고 있는 말 문제를 “존비어체계”라고 불렀다.<sup>2></sup> 존비어체계는 존댓말과 반말로 이루어진 수직적인 언어체계이다.

반말과 닦기는 했어도 평어는 기존에 없던 한국말이다. 휴대전화를 닦기는 했어도 스마트폰이 기존에 없던 통신기인 것처럼. 그렇기에 “한국어의 반말과 평어는 그 걸모습이 똑같다”라는 김미경의 말은<sup>3></sup> 반말과 평어를 구분한다는 점에서 맞지만, 걸모습의 작지만 중요한 차이들을 아직은 못 보고 있는 말이다. 우리는 반말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평어의 새로움을 볼 수 있다.

1  
한나 아렌트, 『정신의 삶』,  
홍원표 옮김. (푸른숲,  
2019), p.169

2  
최봉영, 『한국 사회의  
차별과 억압: 존비어체계와  
형식적 권위주의』,  
(지식산업사, 2005)

3  
김미경, 『영어학자의 눈에  
비친 두 얼굴의 한국어  
존대법』, (소명출판, 2020),  
p.222

말과 생각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수직적인 준비어체계는 한국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어의 준비어체계는 (...) 언어 체계 안에 권력 관계를 개입시켜 생각을 소통하는 방식을 강력하게 규정함으로써 생각을 하는 방식까지 강력하게 규정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sup>4></sup> 준비어체계의 이와 같은 특징은 실제로 준비어체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으며, 그래서 그들은 이 체계를 “차별하고 억압하는 사람들의 편에서” 바라보면서 “경어법”, “대우법”, “존경법” 등으로 불렀다.<sup>5></sup>

최봉영의 선구적인 연구 덕분에 우리는 제대로 된 문제의 이름을 얻었고, 그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에는 준비어체계에 의해 한국사람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언급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 책에는 이 문제에 대한 실천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는 준비어체계를 고치는 일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그는 “무엇이 문제인가를 명확히 이해하는 일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말로 끝을 맺는다.<sup>6></sup>

그리고 15년이 흘렀다. 그 사이에 이론이 아니라 실천의 영역에서 준비어체계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오늘 나는 바로 그러한 시도 중 내가 경험한 것을 소개하려고 한다. 나는 그것을 디자인 실천으로서 소개할 것이다.

최봉영의 책이 나오고 15년 지난 올해 이번에는 영어학자 김미경이 같은 문제를 다루는 책을 출간했다.<sup>7></sup> 그는 자신이 다루는 주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참조물을 보지 못했으며, 그렇기에 여전히 잘못된 이름으로 문제를 지칭한다. 즉 “두 얼굴의 한국어 존대법”. 이 표현은 반쪽짜리 이름 “존대법”이 갖는 결함을 “두 얼굴의”라는 말을 덧붙여 보충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는 최봉영이 본 것을 보았다. 그렇기에 그는 준비어체계가 한국인의 정신을 지배한다고 본다. 그것은 “사람 간에는 항상 위아래가 있다는 것을 세뇌시키는 과정이다.”<sup>8></sup> 더 나아가 그는 준비어체계를 고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그렇기에 그는 반말과 평어를 구분하면서, 준비어체계의 폐지와 평어의 도입을 신중하게 주장한다. 그렇지만 신중과 격정은 역할을 교대할 수 있다는 듯 또한 아주 격정적으로 이렇게 말한다. “존대법 없이 어떻게 질서 유지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은 500년 전 조선 시대와 다르다. 우리는 이미 모든 사람이 평등한 세상에 들어와 있다.”<sup>9></sup>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 2.2. 불안한 현실

2015년 9월, 일본의 철학자 가라타니 고진이 한 출판사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였다. 나는 미국에서 영문학을 전공했다고 들은 그의 젊은 부인과 서울의 한 도심길을 걸으며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나의 관심사를 말하다가 존댓말 이야기가 나왔다. 나의 서툰 영어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곧바로 이해했다. 한국말과 마찬가지로

4

최봉영, 『한국 사회의 차별과 억압: 준비어체계와 형식적 권위주의』, pp.147-8

5

최봉영, 『한국 사회의 차별과 억압: 준비어체계와 형식적 권위주의』, p.147

6

최봉영, 『한국 사회의 차별과 억압: 준비어체계와 형식적 권위주의』, p.273

7

김미경, 『영어학자의 눈에 비친 두 얼굴의 한국어 존대법』

8

김미경, 『영어학자의 눈에 비친 두 얼굴의 한국어 존대법』, p.15

9

김미경, 『영어학자의 눈에 비친 두 얼굴의 한국어 존대법』, p.224

일본말에도 존댓말과 반말을 나누는 존비어체계가 있어서 그랬을 것이다. 존댓말에 대한 나의 관심을 정확히 한정하기 위해 나는 중국말에 존댓말이 없다는 걸 아는지 물었다. 그는 깜짝 놀라 정말 그러냐고 되물었다.

존비어체계 문제를 다룬 최봉영의 책을 읽기 전까지 나 역시 같은 질문을 받았다면 깜짝 놀랐을 것이다 나의 . 경우는 남에게 질문을 받고서 깨우친 것이 아니라 남이 쓴 책을 읽고서 깨우친 것이지만 말이다. 그렇게 해서 나는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그전까지 나는 “子曰”이 “공자님께서 말씀하셨다”로 번역되고 “子貢曰”이 “자공이 말했다”로 번역된다는 사실의 기이함을 알지 못했다. 나의 질문을 받기 전 가라타니 부인의 인식 상태와 최봉영의 책을 읽기 전 나의 인식 상태를 “상태 가”라고 불러보자. 그리고 중국에는 존비어체계가 없다는 것을 아는 인식 상태를 “상태 나”라고 불러보자. 상태 가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달라 보이지 않던 중국이 상태 나의 관점에서는 아주 달라 보인다. 그리고 이제 한국사람과 일본사람의 같은 점이 뚜렷해진다.

최봉영의 책에는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는 곳이 많다. 이 두 나라가 지구상에서 존비어체계가 있는 바로 그 두 나라이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중에는 흥미로운 “야자타임” 이야기도 있다. 야자타임은 존비어체계의 폐해를 극복해보고자 일본사람이 고안해낸 방법이다. “일본인은 중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강한 일체감을 형성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야자타임을 활용하여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sup>10></sup> 최봉영에 따르면, 민주화 열기가 뜨거웠던 1990년대 초 한국에서도 이 야자타임을 수입하여 시도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렇지만 그러한 시도는 일본과는 달리 성공적이지 않았다. 왜? 최봉영은 그 까닭을 이렇게 설명한다.

일본인은 “야자타임”이 끝나면, 그 사이에 있었던 갖가지 무례를 말끔히 잊어버리고,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본래의 엄격한 질서로 복귀할 수 있는 까닭에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야자타임”을 만들 수 있다. 즉, 일본인은 속내와 겉마음을 쉽게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야자타임”을 거듭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 한국인은 하나의 마음을 고집하여 속내와 겉마음이 일치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자타임에 있었던 일을 계속 머리 속에 남겨두게 된다. 따라서 한국인은 야자타임을 만들어도 끝났을 때를 생각하여 말하기를 조심하고 주저한다. 이 때문에 야자타임이 일회성 해프닝으로 끝나게 되어, 그만 흐지부지하고 말았다.<sup>11></sup>

이 설명을 조금만 더 파고들어가 보자. 한국사람들은 왜 속내와 겉마음이 일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혹시 한국에는 “본래의 엄격한 질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일까? “중대한 의사결정”이나 “강한 일체감” 같은 것은 엄격한 질서를 가진 조직이라도 필요로 하고 적절한

10

최봉영, 『한국 사회의 차별과 억압: 존비어체계와 형식적 권위주의』, p.89

11

최봉영, 『한국 사회의 차별과 억압: 존비어체계와 형식적 권위주의』, pp.89-90

방법을 고안해 이를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다. 이에 반해 민주화는 바로 그러한 엄격한 질서를 부정하거나 해체하는 해방적이면서도 불안스러운 운동이다. 위치가 얼마든지 바뀌거나 무너질 수 있는 불안스러운 현실에서 무언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본래의 엄격한 질서”가 아니라 “속내와 겉마음의 일치”일 것이다.

“민주화 열기가 한창 뜨거울 때” 야자타임을 수입하여 “서열을 파괴한 상태에서 자유스럽게 말을 주고받고자 시도하는” 일이 이해 못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렇지만 일본의 야자타임이 흔들림 없는 수직적 조직을 전제하면서 문제 해결책으로 디자인된 것이라면, 한국이 수입한 야자타임에는 왠지 그런 디자인적 요소가 전혀 없는 것도 같고, 그저 낭만적 시도에 불과했던 것도 같다. 혹은 어쩌면 민주화의 욕망을 잘못 읽어낸 것도 같다. 아무래도 민주화는 야자타임 같은 일시적인 서열 파괴로는 충족시킬 수 없는 욕망을 품고 있을 테니 말이다. 불안한 현실은 이따금 깊고도 먼 야망을 품는다.

### 2.3. 뒤바뀐 현실

가라타니 부부를 만나기 얼마 전, 그러니까 2015년 여름, 나는 제주도 거로마을에 자리를 잡은 문화공간 양의 초대를 받아 그곳에서 네 차례 강연을 했다. 관장 김범진과는 서울에서 오랫동안 세미나를 같이 했기에 잘 알고 있는 사이였고, 양에서 일하는 기획자들도 강연 때문에 여러 번 만나 얼굴이 반가운 사이가 되었다. 나는 강연에서 잠깐 준비어체계에 이야기를 했다. 강연이 모두 끝나는 날 나는 양 사람들에게 평어 실험을 제안했다.

우리는 해 질 무렵 해변가에 자리를 잡고 등그렇게 둘러앉아 가볍게 맥주를 마시면서 평어로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 규칙은 간단했다. 상대방을 부를 때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가령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하려고 한다면 우선 나를 “성민”이라고 부르고 나서 말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성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디자인된 평어는 반말과 이름 호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평어 이름 호칭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성민아” 같은 반말 호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었다. 반말과 다른 점은 한 가지 더 있었다. 역시 이름과 관련이 있었는데, 가령 “금방 성민이가 한 말은…”이라고 하지 않고 “금방 성민이 한 말은…”이라고 할 것. 대화는 두 시간가량 평화롭고 유쾌하게 이어졌다. 나이가 가장 적고 평소에 말수가 많지 않았던 기획자도 말을 자유롭게 자신 있게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평어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데는 채 십 분도 걸리지 않았다. 모두가 새로운 언어적 현실에 금방 적응했다. 대화가 깊이를 찾을 때 어둠은 짙게 깔렸고, 사람들은 이 새로운 시간이 저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시

우리는 존댓말을 쓰는 원래의 현실로 돌아가야만 했다. 나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된 그 순간, 존댓말을 쓰는 현실이 내게 너무나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평어는 이미 자연스러운 현실이 되어 있었고, 대화는 그 어떤 대화보다 즐겁고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나는 내 안에서 다시 존댓말로 돌아가야 할 아무런 이유도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에서도 나는 똑같은 기쁨과 아쉬움을 보았다.

이와 같은 경험을 한 후에 다시 그런 경험을 찾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일 것이다. 그것은 어쩌면 세계가 말한 “학습하는 조직”의 경험이었을지도 모른다. 그것을 경험한 “그들 가운데 다수가 인생의 많은 시간을 그 경험을 다시 찾는 데 썼다고 말한다.”<sup>12></sup> 그게 아니면 그것은 어쩌면 스캐리가 말하는 아름다움의 경험이었을지도 모른다. “아름다운 사물들은 (...) 언제나 그것들 내부에서 다른 세계들로부터의 맞이함을 운반한다.”<sup>13></sup> 정말로 그때 어떤 다른 세계가 우리에게 “잘 왔어”라고 인사를 하는 것 같았으니까.

2016년 여름, 나는 같이 책을 읽는 모임에서 평어 사용을 제안했다. 그때 나는 제주도 실험을 기억하고 있었다. 우리는 공원 잔디밭에 모여앉아 평어로 대화를 나누었다. 그렇지만 이 실험은 제주도 실험과 조금 달랐으며, 대화는 제주도의 대화만큼 흥미롭지는 않았다. 표면적인 원인 중 하나는 한 사람이 사적인 이야기를 처음부터 너무 길게 한 것이었다. 제주도의 대화는 말의 주고받음이 활성화되어 있었고 말을 한 사람이 길게 하지 않았다. 이 실패로 인해 나는 평어가 있어야 되지만 평어만으로 되지는 않는 어떤 것의 존재를 깨닫게 되었다. 그것을 X라고 불러보자. X는 세계가 말하는 학습하는 조직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평어는 그것을 위한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었다. 그렇기에 나는 평어만이 아니라 대화 자체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말도 디자인 문제로 볼 수 있듯이, 대화도 디자인 문제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말이다.<sup>14></sup>

## 2.4. 새로운 현실

2019년 여름 나는 을지로의 한 디자인학교에서 정식 수업을 맡게 되었다. 학생 중 일부는 이미 나와 디자인학교 동아리 활동을 같이했기에 친숙한 사이였다. 나는 이 수업에서 평어를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제주도 평어 실험이 좀 즉흥적이었다면, 이번에는 평어 사용 수업을 미리 설계하였다.

평어 실험에서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이렇다. 일반적으로 반말은 거친 도래집단 경험을 상기시키기 때문에, 혹은 존비어체계 안에서의 수직적 관계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성인들의 문화적 대화를 위한 자원으로 간주되지 않고 있다. 그렇기에 나는 평어가 문화적으로 디자인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며, 평어가 반말로 떨어지지 않는지 신경을 써야 한다. 평어는 가령 은유 사용이나 유머 사용에서 전에 없었던 큰 자유를 주기 때문에, 평어 사용자는 그만큼 문화적으로 향상된 언어사용에서 창조적이 될 필요가 있다. 존댓말을 사용할 때, 우리는 존댓말 규칙을 신경쓴다. 반면에 평어를

12

피터 센게, 『학습하는 조직』, 강혜정 옮김, (에이지21, 2014), p.25. 번역 수정

13

일레인 스캐리, 『아름다움과 정의로움에 대하여』, 이성민 옮김, (도서출판 b, 2019), p.63

14

대화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센게의 『학습하는 조직』 11장을 읽어볼 수 있다. 여기서 센게는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의 『창조적 대화론』(강혜정 옮김, 에이지21, 2011)에서 큰 영감을 이끌어낸다. 시어도어 쥘딘의 『대화에 대하여』(문희경 옮김, 어크로스, 2019) 또한 대화를 다룬 훌륭한 책이다. 이 세 권의 책의 번역 상태는 중, 중, 하 정도이다.

사용할 때 우리는 말의 디자이너가 되어야 한다.

평어 사용 수업 첫 시간에 나는 눈녹이기(icebreaking)로 다음과 같은 형식의 인사 나누기 놀이를 디자인하여 진행했다.

경근: (보명을 보면서) “고마워, 보명.”

보명: (경근을 보면서) “천만에, 경근.” (상미를 보면서) “고마워, 상미.”

상미: “천만에, 보명.” “고마워, 지은.”

지은: “천만에, 상미.” “고마워, 재호.”

재호: “천만에, 지은.” “고마워, 경근.”

경근: “천만에, 재호.”

이 놀이는 한편으로 평어 사용과 이름 호칭 사용에 금방 익숙해지게 해주며, 다른 한편으로 한국어말 대화에서 거의 멸종된 “고마워”와 “천만에”의 교환을 활성화시킨다. 실제로 디자인학교의 평어 사용자들 사이에서 이제 이 교환은 자연스러워졌다. 디자인되지 않은 자연 상태의 반말 사용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 새로운 자연스러움을 디자인 효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멸종한 이름을 놓아두고 별명을 사용하는 전해 들리는 반말 실험들에 찬성하지 않는 편이다. 옆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데 익숙해지면, 바로 그 이름이 말 그대로 “고유명”이 된다.

디자인학교 1기 학생들의 평어 사용이 정착되었을 때 나는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되었다. 하나는 디자인학교에서 수업을 하나 맡고 있는 정연두 작가가 학생들과 평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그 시작은 연두가 아니라 학생들이었다. 이미 평어에 익숙한 학생들이 발표를 할 때 평어를 사용해서 했고, 나중에 평어 사용에 동의를 한 연두를 향해 “연두, 너는 어떻게 생각해?”라고 질문을 했다. 지금은 나와도 평어를 사용하는 연두는 그때의 느낌을 나중에 내게 전해주었다. 즉 “너”를 사용한 평어 질문은 그 질문을 직접적이고도 진지한 방식으로 대하게 만든다는 것이었다. 대화가 아주 활성화되었던 연두의 수업은 학생들에게도 선생에게도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었다.

또 다른 소식은 디자인학교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평어 사용이 1기 학생들에게서 2기 학생들에게로 자연스럽게 퍼지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현재 평어는 존댓말과 함께 디자인학교의 주된 언어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소식은 디자인학교의 성재혁 교수가 디자인학교의 평어 사용에서 영감과 용기를 얻어 학부 수업에서 평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크리티키 중요한 디자인 수업에서 평어 사용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알아차린 것일 수도 있다. 성재혁 선생의 시도에 용기를 얻은 나는 디자인학교만이 아니라 대학의 학부 수업에서 현재 평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평어 사용은 “나”에게도 “너”에게도 작고도 새로운 현실이 되어 있다.

### 3. 결론

평어는 언뜻 반말처럼 보인다. 스마트폰이 언뜻 휴대전화처럼 보이듯. 휴대전화는 기본적으로 전화기다. 전화기를 휴대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스마트폰은 인터넷도 할 수 있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수도 있다. 전화는 스마트폰의 기능 중 하나일 뿐이다. 현재까지 개발된 평어를 구성하는 부품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이름 호칭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변형된 반말이다. 한국말에서는 이름 호칭이 거의 사라지기는 했지만 영어에서는 가장 선호되는 호칭법 중 하나이다. 반말은 아동기나 청소년기의 호칭법을 사회에서도 사용하는데, 가령 “언니”, “형”, “선배”, “성민아” 같은 호칭이 그렇다. 이런 호칭은 가족 프레임이나 학교 프레임을 끌고 온다. 영어에서도 “bro”나 “baby”나 “son” 같은 가족 호칭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때 그 영어는 평어가 아니라 반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평어는 현재 이름 호칭과 변형된 반말의 결합이다. 이러한 결합은 지금 한국말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평어는 전화기라기보다는 스마트폰에 가깝다. 다시 말해서 평어는 집 밖에서도 널리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반말이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말이다. 이름 호칭의 중요성을 김미경은 이렇게 말한다. “존대법에서 벗어나서, 누군가를 이름으로 부른다는 것은 상대를 개성을 가진 한 개인으로 인식한다는 뜻이기도 하다.”<sup>15></sup> 그렇기에 평어의 이름 호칭이라는 부품은 아주 중요한 부품이다.

평어가 안착을 한 집단이 생겨났을 때, 그리고 나도 그 집단에 포함되어 있을 때, 나는 사람들의 모임과 관계의 아름다움을 분명하게 볼 수 있었다. 우리는 평생 잊기 힘든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그렇지만 아름다운 것을 볼 때 우리는 혹시나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기에 “아름다운은 신중을 부추긴다.”<sup>16></sup>

평어는 쉽사리 반말로 변질될 수 있다. 우리는 존대말과 반말 각각이 평등 관계든 상하 관계든 다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반말을 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존대말을 한다는 게 다가 아니다. 실은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존대말을 쓸 수도 있고 서로 반말을 쓸 수도 있다.

가령 “언니, 지금 어디야?”라는 말은 상하 관계에서 서로 반말을 쓰는 경우이다. 나는 평어 실험 중 평어가 “언니, 지금 어디야?” 같은 반말로 빠르게 변질되는 경우를 목격한 적이 몇 번 있다.

나는 평어에서 무엇이 더 개발되어야 하는지 아직 알지 못한다. “고마워”와 “천만에”의 교환 같은 일상적인 교환들이 새롭게 디자인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혹은 평어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문학이나 영화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어 학자 박영순은 존비어체계의 사용이 은유 사용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관찰했다. “청자가 누구냐에 따라 존대 등급에 따른 문장 어미도 달라지고, 호칭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은유적 표현의 사회적 수용성도 달라진다. (...) 손윗사람에게는 은유를 사용하는 것이 예절에

15

김미경, 『영어학자의 눈에 비친 두 얼굴의 한국어 존대법』, p.43

16


스캐리, 『아름다움과 정의로움에 대하여』, p.43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sup>17></sup> 따라서 평어를 사용할 경우 일상의 삶을 좀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은유를 개발하는 일이 좀더 쉬워질 것이다. 나는 유머의 경우도 그럴 수 있다고 본다.

서양에서 발달된 문화적 언어가 만약 평어라면, 최근에 어쩌면 그 서양에서 평어가 반말로 급속하게 변질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문화 발달의 바탕에 평어 디자인이 놓여 있다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반말은 문화를 꿈꾸기 시작하면서 평어로 변모한다.<sup>18></sup>

앞에서 나는 평어 실험의 실패로 인해 평어가 있어야 하지만 평어만으로 되지는 않는 어떤 것 X의 존재를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잘 알려진 것처럼 히딩크호의 월드컵 성공은 평어 없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렇지만 그것은 또한 학습하는 조직이었다. 히딩크호를 탑승한 선수들과 코치들의 여정을 어쩌면 우리는 모험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예전에 나는 평어를 모험의 언어라고 불렀다.<sup>19></sup> 이때 모험이란 세계가 말하는 “학습하는 조직” 같은 것을 말한다. 평어 없는 모험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일본의 디자이너 야마자키 료의 커뮤니티 디자인 모험들이 알려주듯이.<sup>20></sup> 그렇지만 정치적 민주주의가 실현된 곳에서 평어 없는 모험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나의 판단이다. 평어 디자인은 학습하는 조직 디자인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17

박영순, 『한국어 은유 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2000), p.6

18

반말에서 문화로의 이행을 뒤에서 잡아끄는 힘이 있다. 그것은 바로 “위락(distraction)”이다. 오늘날 놀이와 문화 사이에 위치한 위락은 놀이와 문화 양쪽 모두를 질식시킨다. 한나 아렌트가 예리하게 관찰했듯이, 이때 가장 좋지 않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식인일지도 모른다.

19

이성민, 『모험의 언어』, <http://didam.net/?pageid=9&mod=document&uid=61>

20

야마자키 료, 『커뮤니티 디자인』, 민경옥 옮김, (안그래픽스, 2012)

### 참고문헌

- 김미경, (2020), 『영어학자의 눈에 비친 두 얼굴의 한국어 존대법』, 소명출판
- 박영순, (2000), 『한국어 은유 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 이성민, (2019), 『모험의 언어』, <http://didam.net/?pageid=9&mod=document&uid=61>
- 최봉영, (2005), 『한국 사회의 차별과 억압: 존비어체계와 형식적 권위주의』, 지식산업사
- 데이비드 봄, (2011), 『창조적 대화론』, 강혜정 옮김, 에이지21
- 시어도어 쥘딘, (2019), 『대화에 대하여』, 문희경 옮김, 어크로스
- 일레인 스캐리, (2019), 『아름다움과 정의로움에 대하여』, 이성민 옮김, 도서출판 b
- 야마자키 료, (2012), 『커뮤니티 디자인』, 민경욱 옮김, 안그라픽스
- 피터 센게, (2014), 『학습하는 조직』, 강혜정 옮김, 에이지21
- 한나 아렌트, (2019), 『정신의 삶』, 홍원표 옮김, 푸른숲